

참선·불교공부 여성 늘고 있다 시민선방 74, 불교대 66% 차지

본지 조사

‘차마불교’ 이 말은 시주금이나 내면서 기복적 신행생활을 하는 여성불자들과 그런 불교의 현실을 동시에 비하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특히 수행과 공부에 관한 한 늘 이방인 취급을 받아왔던 여성불자들. 하지만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오히려 수행과 불법공부의 중심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본지가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사찰의 시민선방과 불교대학 각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불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민선방 73.6%, 불교대학은 66.3%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종교인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54.2%, 전체 불교인구 가운데 여성불자가 58.1%라

하는 여성불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에 등록된 30개 불교대학에서도 여성불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6.3%로 남성불자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0개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불자는 모두 8,84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여성불자는 5,866명이었다.

이들 불교대학 중 남양주 봉선사불교대학, 창원 불지불교대학, 대구 직지불교대학과 경북불교대학, 부산불교교육원, 서울 봉은사불교대학 등은 전체 학생 중 여성불자가 90%를 넘었으며, 남성불자가 많은 곳은 서울 동산불교대학 등 5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남성불자가 많은 곳도 여성불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 되는 등 전체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여성불자가 폭넓게 자리잡고 있었다.

5월 4일 해인사 원당암을 들머리는 법복차림의 보살들이 예사롭지 않다. 며칠 계속된 비로 푸름을 띤 초목을 배경으로 그들의 법복 빛이 더욱 짙다. 원당암을 들머리는 보살들의 행렬은 끝날 줄을 모르고 이어진다.

“오늘은 달마선원 특별정진 날이에요. 오늘밤부터 내일 새벽 4시까지 참선 정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날이죠.”

성남에서 왔다는 본심행(69) 보살은 친절하게 일러주고 한마디 덧붙인다. “20년 동안 빠지지 않았을 정도로 공부재미가 좋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공부하면 지으면 그게 바로 복받는 거 아니겠어요.”

전 조계종 중흥 해암스님에 의해 개설된 재가선방인 달마선원은 1996년 문을 연 이후 생활 속 불교수행의 요체를 전하는 전국 제일의 재가선방으로 자리잡았다. 매년 하안거 동안거에 100여 명씩 결계를 하고 있으며, 매 안거마다 250명이 넘는 인원이 일주일 철야용맹정진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다.

용맹정진은 일주일 단식, 장좌불와, 하루 17시간의 참선 등 화두타파를 위한 혹독한 수행이 이어진다. 산철인 요즘에도 103세인 광명화 보살을 비롯 20~30명의 대중이 달마선원을 떠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매일 1, 3주 특별정진날이면 4~5백명의 불자들이 부산, 대구, 밀양, 인천,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다. 이들 중 90% 이상이 보살들이며 달마선원의 보살 파워는 막강하다. 보살들과 함께 정진하고 있던 이송은居士는 “보살님들이 대단하다”며 “수행에도 철저하고 또한 생활속의 실천이 투철한 분들이 많다”고 혀를 내둘렀다.

서울 개포동 금강선원 선문장(禪門將)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여성불자들의 모습에서 진지함이 묻어난다. 허리를 곧추 세우고 가부좌를 틀어 앉은 금강선원 정수회(正受會) 회원들.

금강선원 정수회(회장 김은민)는 경전공부와 참선 수행을 펼치는 30여명의 여성불자로 구성된 모임이다. ‘삼매’의 미가 담겨 있는 정수회라는 이름은 금강선원 원장 혜거스님이 용맹정진을 하라며 특별히 지어준 이름이다.

회원들은 매 주 월요일과 화요일 금강선원에 모여 참선과 금강경 독송, 영가스님의 어록을 공부한다. 금강경과 영가집을 공부하기 이전에는 원각경과 신심명을 공부했다. 모임이 있는 날 시간이 날 때마다 회원들은 토론을 통해 공부를 점검한다. 월 한차례는 강원도 홍천의 폐교에 마련된 선문장에서 집중적인 수행도 한다.

금강선원에 모여 공부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공부는 오히려 자기 수양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수회 회원들은 잘 알고 있다. 이들은 가사에 쫓긴다는 핑계를 대지 않는다.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제약은 수행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일 뿐이다.

정수회 김은민(52) 회장은 “경전 공부와

수행·공부하는 여성불자들

10년 전부터 달마선원과 인연이 된 김지혜심 보살(62·밀양)은 “아픈 다리, 쏟아지는 잠을 물리치며 내 근본심을 참구하다 보니 지금은 힘든 것을 잊었다”고 말했다. 김 보살은 “불법을 제대로 알고 배우면 바깥으로 구하고 복을 빌던 마음이 없어서 생활이 아주 편안해지고 남을 절로 이해하게 된다”고도 했다. 그런 삶의 변화는 정진을 멈출 수 없게 하는 힘이 되어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발원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김 보살은 굳게 믿고 있다.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달마선원을 찾는



해인사 원당암 달마선원에서 참선에 든 여성불자들.

달마선원 여성불자들

“佛法 알고 나니 생활 즐거워”

일주일 단식·장좌불와 등 험없는 정진 앞장

보리수 보살(39·창원)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수행하는 보살님들의 모습을 보고 불교의 바른 수행을 어릴 때부터 익히게 하고 싶어 아이들과 함께 왔다”며

“스스로 참구하고 의문을 풀고자 하는 수행 정진만이 부처님 제자가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딱! 딱! 딱! 세 번의 죽비소리가 ‘부처를

가려 뽑는다’는 선불당(禪佛堂)을 울리자. 빼곡히 앉은 보살 선객들의 눈동자는 내면을 향해 깊어진다. 선불당 주위를 감싼 어둠과 같은 ‘이 쫓고’ 알 수 없음의 의심 덩어리. 다시는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점의 번뇌망상마저도 일지 않는 해인삼매의 각처를 이룰 때까지 어둠을 몰아내는 선불당의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대들보인 보살들의 험없는 정진도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해인사 원당암=천미희 기자

참선 수행은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은 물론 자신의 생활과 주위까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불교계에 더 많은 공부하는 모임이 생겨 기초가 튼튼한 불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는선우 법화경 공부모임(강주 남지심)은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는 30여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경전 공부모임이다.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이 50대의 여성불자들이다.

법화경 공부모임은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는 도반으로서 어려움이 있거나 좋은



서울 금강선원 정수회 회원들이 모여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다.

여성불자 공부 모임

금강선원 정수회

매주 월·화요일 이틀 금강경·영가집 공부

우리는선우 법화경 모임

월 1회 모여 공부에 대한 의견 나누고 사경

일이 있을때면 함께 나누고 의논하기 위해 올해 1월 남지심 국제선우회 회장 주도로 결성됐다. 하지만 지금은 경전 삼매에

빠져 있을 정도로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수복 팀장은 “올바른 신행생활과 불자로서의 참된 자세가 바로 경전공부에

있음을 회원들은 깨닫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공부가 얼마나 진척됐는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의견을 나눈다. 또 경전공부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한달에 한번 사경도 병행하고 있다.

회원 개개인이 모두 재적사찰을 갖고 있는 법화경 공부모임은 성태용 건국대학교수가 이끌고 있는 유마경 공부모임과 함께 우리는선우 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부모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a.com

“여성 성불할 수 없다” 관념 사라져

‘제대로 배우고 수행하자’ 신행관 확산

한국불교 바뀌 나가는 주역 자리매김

는 1999년도 통계청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다. 특히 시민선방과 불교대학 모두 최근 2~3년새 여성불자가 계속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기복불교=여성불자’라는 오랜 통념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지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 현재 문을 열어놓고 있는 30개 시민선방에서 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불자는 2,70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여성불자는 전체의 73.6%인 1,989명으로, 남성불자의 3배나 됐다.

이 가운데 부산의 통도사 부산포교원과 해운정사, 대구 흥제사, 경기 도피안사 등은 여성불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었으며, 70% 이상인 곳만도 8곳이나 되는 등 한 곳을 제외하고는 여성불자가 남성불자보다 많았다.

또한 최근 2~3년 동안 시민선방을 찾는 여성불자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 이상 늘어났으며, 여성불자가 줄어든 곳은 단 한 곳뿐으로, 수행

불교대학에서의 여성불자수는 6곳을 제외한 24곳에서 최근 2~3년새 10~40%가량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남녀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은 3곳을 제외하면 실제로 여성불자수가 감소한 곳은 3곳뿐이다.

이렇게 수행과 공부하는 여성불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여성 성불할 수 없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깨진 데다, 기복불교에서 벗어나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수행하겠다는 신행관이 여성불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해운정사 시민선방에서 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철스님은 “사회의 남녀차별적인 인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여성 불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런 여성불자들은 앞으로 계속해 늘어날 것이며, 이들이 곧 불교의 모습을 바꿔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a.com

-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 -

온 누리에 우담바라피는 정토 이루게 하소서!

청정삼보전에 합장 귀의하옵니다.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전국의 원로 대덕스님께 보체청정하심을 문안드리며, 불자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자비와 평등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한 삶을 이루고자 하심이니 실로 그 크신 뜻에 귀의합니다.

불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호국과 호법을 기치로 국리민복을 위해 그 법력을 경주하니 호국대찰 황룡사가 있고, 전생 현세의 부모님께 효성을 기울이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고려 때 국가를 튼튼히 하고자 민의를 모아 부처님의 금구명언을 목판본으로 만들어 인류역사에 빛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선포되었습니다.

조선조에는 임진왜란 당시 서산, 사명, 기허선사로 이어지는 호국승장이 풍전등화속의 조국을 법력으로 건졌으며, 일제 36년간에는 만해와 용성선사가 부처님의 법으로 무장하여 독립투쟁에 헌신하였으며, 선학원과 대각회를 만들어 삼보정재를 지켰습니다.

소생의 업친이신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불교의 호국사상을 통찰하시어 불국사와 법주사 등 부처님 도량 재건불사에 정진하셨고, 모친 육영수 여사는 청담스님으로부터 대덕화 라는 법명을 받고 서울 삼각산 도선사 중창불사의 원력을 세워 부처님 조성과 가람 재건에 진력하셨습니다.

저는 양친의 불교신앙정신에 감응해오다가 이번에 당리당락과 부정부패로 얼룩져있는 현 정치를 과감히 바꿔서 부처님의 호국사상에 근간한 민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뜻을 세웠습니다. 이 초파일에 광명으로 밝혀지는 부처님의 연등을 통하여 어리석음을 지혜로, 불행을 행복으로 어둠을 법등으로 밝히는 전국 2천만 불자들의 그 신심에 감사드리며, 저도 불국정토실현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원력을 세웠습니다.

전국의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이방본(民而邦本)임을 깊이 인식하는 불국정토를 위해 기도정진을 실천하여야 하며, 불초 소생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 전국민이 우담바라 피는 화장세계를 이루시라고 불전에 분향 합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미래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장

이근희 합장